

# 아동의 출처 감찰(source monitoring) 수행에 미치는 면담자 지지와 인지훈련의 연령별 효과

이 승 진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증언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 능력 중의 하나로 아동의 출처 감찰(Source Monitoring)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의 태도가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어린 아동들은 나이가 든 아동들보다 면담자의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인지 훈련 제공이 아동의 출처 감찰의 정확성에 미치는 연령별 효과도 알아보았다. 어린 아동들은 사건의 인지 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들에게도 면담자의 지지를 풍부하게 제공하였을 때는 인지 훈련의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요구 받는 대상이 어린 아동일수록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아동의 기억 회상의 정확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지지가 어린 아동들의 출처 감찰 수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 면담 시 어린 아동을 면담하는 면담자의 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주요어: 출처 감찰, 면담자의 태도, 인지 훈련

최근 들어, 아동 학대나 이혼, 성 폭력 등 형사나 민사 사건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 혹은 목격한 사실을 아동에게 증언하게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아동이 증언자로서 얼마나 정확한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아동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현재 법정에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진술 녹화를 증거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사, 재판 시에

---

\*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아동에게 불필요한 반복 조사를 억제하고, 아동 증언을 생생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사 현장의 이런 도약과 발맞추어, 보다 신뢰성 있는 아동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학문적인 고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쉽게 왜곡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망각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생략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들을 첨가시켜 과거의 기억을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기억도 또한, 이러한 역동적인 구성 과정들을 통해 변화, 왜곡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 구성 기억 연구에 중요한 시사를 주는 연구 중의 하나가 아동의 출처 감찰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출처 감찰(Source Monitoring)이란 특정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고자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활동이다. 아동의 출처 감찰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어린 아동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과 단지 상상한 사건에 대한 것의 구별을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 능력은 사건 후 제시되는 오정보의 저항 정도에 절대적인 기준치가 된다고 한다(Ackil & Zaragoza, 1995; Foley & Johnson, 1985; Lindsay & Johnson, 1989; Poole & Lindsay, 1995, 2001). 따라서 연구자들은 과거 사건의 회상 시 아동이 부정확한 증언을 하게 되는 원인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출처 감찰의 수행 착오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아동의 목격 증언과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 중에는 아동이 특정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경우, 실제로 아동이

그 사건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보았는지 혹은 단지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Lindsay, Johnson, & Kwon, 1991).

출처 감찰이 인지적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많은 출처 감찰 연구들은 아동이 출처 감찰을 수행할 때 응용될 수 있는 인지적 요인들을 언급하여 왔다(Roberts,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처 감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이 아닌 사회 맥락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해 보고자 하였다. 회상시의 출처 감찰 수행은 기억의 부호화 혹은 저장 과정이 아닌 인출의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자동적이기 보다는 회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과 같은 의도적인 측면이 더 요구되기에 사회 맥락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처 감찰과 같은 인지 처리 과정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논리적 인지 체계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적 맥락에 민감한 어린 아동들은 출처 감찰과 같은 인지 과제 수행시 사회 맥락적 요인이 수행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발달적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아동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비인지적 요인이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것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출처 감찰 인지 훈련의 효과가 없었던 어린 아동들에게도 면담자의 지지라는 비인지적 요인이 부가되면 출처 감찰 인지 훈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출처 감찰에서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출처 감찰 능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Foley

& Johnson, 1985; Markham, 1991; Parker, 1995; Welch-Ross, 1995). 그러나 실험 상황에서 아동의 출처 감찰의 수행 성공 여부는 맥락이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 관련 변인에는 '연령'뿐 아니라 출처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의 부호화, 통합, 인출과 같은 아동의 사고 과정의 내적 기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거론되어 왔다. 예컨대, 출처들의 특성(유사성, 복잡성), 출처를 감찰하는 주체의 특성(생성 효과, 관점의 차이, 정교화 과정), 출처 감찰과 타인의 상호작용(시각적, 운동 감각적 피드백), 인터뷰 형태, 출처 감찰 사전 인지 훈련 등과 같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곽금주, 이승진, 2006).

최근에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출처 감찰 인지 훈련의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Thierry & Spence, 2002; Cameron, 2007). 이 연구들은 출처 감찰 인지 훈련이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 정확도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성인의 경우 과거 사건의 회상시 출처에 집중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출처 감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Zaragoza & Lane, 1994)처럼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되고 있다. 예컨대, 출처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출처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전 인지 훈련이 출처 감찰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Thierry & Spence, 2002; Zaragoza & Koshmider, 1989).

그러나 나이에 아동들과는 달리, 어린 아동들에게는 이와 같은 출처 감찰의 사전 인지 훈련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Thierry & Spence, 2002).

아동이 인지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이나, 용량, 단서 제공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의 영향과 별개로 과제 수행의 상황과 맥락이라는 비

인지적인 요인들의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지 과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비인지적 요인은 아동으로 하여금 "최상의" 수행을 이끌어 내는데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Fisher, 1980; Vygotsky, 1978). 최근에는 사회적 맥락이 비우호적일 경우 아동의 인지 수행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지기도 했다(Quas, Bauer, & Boyce, 2004). 이처럼 수행 환경의 맥락이라고 하는 비인지적인 요인이 인지적 수행인 단기 회상의 정확성에서 비롯하여 학업 수행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되어왔다(Burleson, Albrecht, Goldsmith, & Sarason, 1994; Sarason, Sarason, & Pierce, 1990).

긍정적 환경이라는 비인지적 요인의 역할은 인지적 과제 수행 상황에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 긴장의 수준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서적인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인지 과제 수행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Carter, Bottoms, & Levine, 1996; Roberts, Lamb, & Sternberg, 2004).

아동 면담 상황에서의 비인지적 요인의 하나로 면담자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요구하는 법정 면담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불안은 매우 크다. 실제로 아동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불쾌함과 불안을 매우 크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있다(Goodman, Taub, Jones, England, Port, Rudy, & Prado, 1992; Saywitz & Nathanson, 1993). 아동 증언 연구에서 면담자의 지지와 같은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협력적일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곽금주와 김연수(2003)의 연구에 의하면, 면담자가 위협적인 사

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아동은 기억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질문자가 위협적인 사람인 경우 취학 전 아동의 기억 수행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면담자가 지닌 특성이 아동 증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결과이다.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연구자들은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support)라고 조작성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때 '지지'는 면담자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면담자의 지지는 면담자의 친근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아동들에게 과거 놀이 상황에 대해 친근한 사람 혹은 낯선 이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제공하면, 낯선 이와 면담한 아동에 비해 친근한 사람과 면담한 아동이 더 정확한 응답을 하고 유도 질문들에 더 잘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근한 사람이 낯선 이 보다 면담 시 아동에게 더 지지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 결과는 지지적인 면담자가 그렇지 않은 면담자보다 아동으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Goodman, Sharma, Thomas, & Considine, 1995). 또 친숙하고 따뜻하고 친절함 면담자로부터 면담을 받을 때 아동들이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에서 부정확성을 감소시키고, 시간이 지난 후 암시성에 대한 오류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et al., 1996; Ceci, Ross, & Toglia, 1987). 뿐만 아니라 친숙한 면담자에 의해 면담을 받은 아동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에 관한 정보와 면담자가 제공하는 오 정보를 더 잘 구분할 수 있었다(Quas, Schaaf, Alexander, & Goodman, 2000).

이렇게 면담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사회 맥락적 측면에서 아동의 위협이나 불안을 감소시켜,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Davis, 1998).

또한, 면담자의 지지는 아동의 응답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도 질문에 대한 저항을 도와 주게 된다(Davis & Bottoms, 2002). 결국, 면담자의 지지 부족은 아동의 인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실제로 '불안'이란 아동의 인지 과제 수행에서의 집중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아동의 스트레스나 생리적 흥분은 인지 과제 수행과의 부적 상관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Richards & Casey, 1991; Suess, Porges, & Plude, 1994; Wood, McClure, & Birch, 1996).

따라서 면담자의 지지가 풍부한 맥락은 아동의 불안, 스트레스, 흥분, 각성의 정도를 낮추어 인지 과제 수행에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많은 기억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인지적 요인들과 아동의 출처 감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아마도 과거 사건의 회상 정확도에 출처 감찰 수행의 중요도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정보의 출처 혼란 정도는 개인사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출처 감찰의 수행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 목격 증언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 세계는 아동들에게 방대한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아동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텔레비전 장면이나 잡지 등을 통해 도처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아동이 신뢰로운 출처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처 감찰 능력의 발달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아동에게 사태 기억에 관한 정보를 말로써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면담자가 제공하는 유도적인 정보들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법정 상황에서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지적인 용량에 한계가 있는 어린 아동일수록 사회적 맥락에 더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출처 감찰의 수행 성공 여부에 비인지적인 요인의 영향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확한 인출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것, 회상 과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에는 사회/환경적 맥락이라는 비인지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면담 상황에서의 면담자의 태도이다. 면담자가 면담하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정서적 지지 제공이 과거 사건의 회상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과정에는 출처 감찰이 요구되고 이러한 출처 감찰은 사회/환경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처 감찰의 수행에 있어서 비인지적 요인으로 면담자의 지지와 인지적 요인으로 인지 훈련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1에서는 ‘면담자의 태도’라는 비인지적 요인이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의 정확도라는 인지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 2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어린 아동들에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전 인지 훈련의 효과가 면담자의 지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실 험 1

실험1에서는 비인지적 요인 중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아동의 출처 감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기존 연구를 근거로 출처 감찰 능력의 주요 변화들이 일어나는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담자의 태도가 지지적인 경우나 비지지적인 경우의 수행을 비교 하고자 하였다. 면담자의 지지라는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은 어린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나이든 아동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출처 감찰 수행 정확도에 있어서 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동(30명)과 나이든 아동(31명)이 참가 하였다. 어린 아동 집단의 평균 연령은 4세 8개월(3세 11개월~5세 10개월)이었으며, 나이든 아동 집단의 평균 연령은 6세 8개월(6세 1개월~7세 11개월)이었다.

### 도구 및 절차

아동 2명을 함께 앉혀 놓고 간단한 과학 실험 6가지를 보여 주었다. 과학 실험은 Thierry 와 Spence(2002)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한국 아동들의 수준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다음으로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실제 실험은 실험 도구와 실험 순서,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실험의 결과 면에서만 단지 차이가 있었다. 실제 실험과 동영상 실험에서의 과학 실험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나

아동들이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성되었다(참조1).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후에 아동은 면담을 받게 되는데 총 24문항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는 컴퓨터와 직접 본 것인지 그 출처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을 말하면 1점으로 처리되어 0점-24점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면담자의 지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면담자의 행동 중에서도 아동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온 것을 기반으로 눈 맞춤, 머리 끄덕임(Mehrabian, 1969), 아동과의 거리(Kelley & Gorham, 1988), 면담전 라포 형성(Tannen, 1990; Roberts et al., 2004)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지 조건의 면담자는 우선 아동과 1~2분 정도 정해진 지시대로 라포 형성을 충분히 하고,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간다. 또한 질문하는 동안 아동과 눈 맞춤을 지속적으로 하고 아동의 응답 정확성 여부에 상관없이 고개 끄덕임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아동과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질문을 한다. 반면, 비지지 조건의 면담자는 첫 아동과 대면 후 1~2분 정도 질문지만을 쳐다보며 아동과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정해진 지시문을 읽어주고 아동에게 질문을 한다. 질문하는 동안 아동과 눈맞춤이나 고개 끄덕임은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과 면담자는 책상을 두고 마주보고 앉는다.

면담이 끝나고 나면 아동들은 새로운 다른 면담자에 의해 면담하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전 면담자가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질문 받게 된다. 이는 면담자의 호감도(Davis & Bottoms, 2002)와 아동의 불안(Spielberger, 1979;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TAI-C)을 측정하는 것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과 찡그리는 표정을 만들어서 면담시 아동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혹은 면담자가 편안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아동이 직접 자신의

기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면담자의 호감도와 아동의 불안 척도를 평가해 보았더니, 면담자의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면담자의 호감도를 높이고, 불안의 수준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et al., 1996; Davis, 1998; Davis & Bottom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면담자의 호감도와 아동의 불안 측정치를 사용하되 한국 아동의 특성에 맞게 측정치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호감도의 질문은 4문항(선생님의 친절정도), 불안 질문(불안 관련감정 관련)은 9문항이며 모두 4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실제 Spielberger(1979)의 불안 척도는 20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9문항을 선택하였다(신뢰도 alpha 값은 .83).

## 결 과

아동이 면담하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두 연령 모두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지 않았던 통제 집단( $M:20.7$   $SD:6.8$ )에서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된 실험 집단( $M:12.6$   $SD:1.5$ )보다 불안이 높았다.  $t(59) = -6.14, p < .01$  면담 조건과 연령에 따른 출처 감찰의 정확도는 표1과 같다.

표1. 면담자의 지지에 따른 출처 감찰의 정확도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출처 감찰의 정확도	면담자 지지 제공	면담자지지 제공 없음
	$M(SD)$	$M(SD)$
어린 아동	12.6(2.32)	7.67(2.47)
나이든 아동	21.0(1.51)	18.13(1.30)

면담자의 지지가 연령에 따라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면담자의 지지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60.97, p <.01$ . 면담자의 지지가 있는 실험 집단 아동들이 관찰한 과학 실험에 대한 출처 감찰을 통제 집단보다 더 잘 수행하였다. 한편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는데  $F(1, 57)=45.05, p <.01$ . 어린 아동에 비해 나이든 아동이 출처 감찰 수행을 더 잘하는 것은 발달적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면담자의 지지와 연령 간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4.28, p <.05$ . 결국, 어린 아동들이 면담자의 지지 영향을 나이든 아동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인지 과제 수행시 상황과 맥락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그림1).

실험 1에서는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과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의 태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면담자의 지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출처 감찰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으며, 면담자의 지지로 인한 수행 정확도의 향상은 나이든 아동에 비해 어린 아동들이 더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어린 아동들이 출처 감찰을 수행할 경우, 면담자의 지지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실험 2

실험1의 결과, 출처 감찰이라는 인지 활동에 면담자의 지지라는 비인지적 요인이 어린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비인지적 요인이 어린 아동들의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전 인지 훈련이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던 선행연구(Thierry & Spence, 2002)의 결과와 달리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해 주면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인지 훈련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2에서는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출처 감찰 사전 인지 훈련이 연령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법

### 연구 대상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동(66명)과 나이든 아동(6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어린 연령 집단의 평균 연령은 4세 10개월(3세 5개월 ~ 5세 9개월)이었으며, 나이든 연령 집단의 평균 연령은 6세 10개월(6세 2개월 ~ 7세 10개월)이었다.

### 도구 및 절차

과학 실험 단계까지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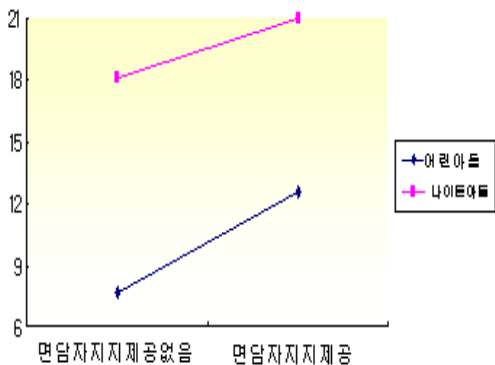


그림1. 면담자의 지지에 따른 출처 감찰의 정확도의 연령별 효과

험 2에서는 출처 감찰 인지 훈련 조작이 들어가는 데 이 절차는 아동이 과학 실험을 본 후 자유 놀이를 하고 나서 제공되었다. 우선 아동에게 ‘토끼와 호랑이’에 관한 인형극을 실제로 보여주고, 등장인물과 상황은 비슷한 인형극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각각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동들은 실제와 동영상으로 접한 인형극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이 때 실험 집단의 아동들은 질문 내용의 응답을 실제와 컴퓨터 즉, 출처에 대한 물음을 받고, 면담자도 출처를 계속해서 강조해 준다. 그러나 통제 집단의 아동은 인형극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되 출처 언급이 전혀 없고, 질문도 출처를 구별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참조2,3). 이러한 출처 감찰에 대한 출처 훈련은 총 5분 정도가 소요되고, 훈련이 있고 나면 면담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과학 실험에 대한 출처 감찰 질문을 받게 된다. 실험 1에서 사용한 질문지와 동일하고 점수체계로 동일하여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 0, 최대 점수는 24점이다.

면담자의 지지 조작은 실험 1과 동일하며, 면담 후 아동들은 새로운 면담자에 의해 앞선 면담자에 대한 호감도와 불안을 평가 받는다. 이 모든 절차는 한 아동에게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결 과

면담자의 호감도에 있어서 면담자 지지에 따른 집단의 주효과,  $F(1, 124) = 35.18, p < .01$ , 연령의 주효과,  $F(1, 124) = 34.22, p < .01$ 가 나타났고, 면담자 지지와 연령과의 상호 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124) = 24.17, p < .01$ . 이는 면담자의 호감도 평가에서 어린 아동들이 면담자가 제공해주는 지지의 여부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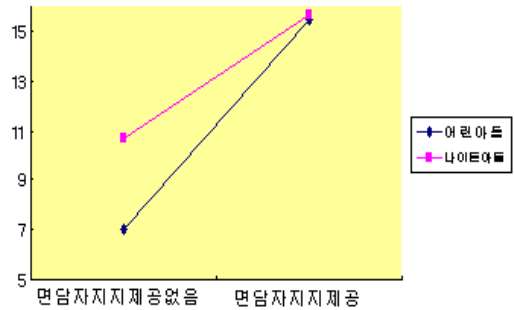


그림2. 면담자의 지지에 따른 아동이 평가하는 면담자 호감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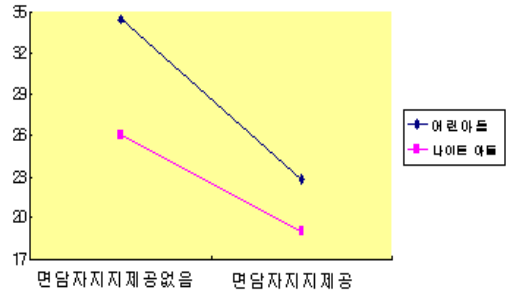


그림3. 면담자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불안 정도의 차이

한편, 아동이 면담하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평가한 경우에도 면담자의 지지 여부에 따른 집단의 주효과,  $F(1, 124) = 78.21, p < .01$ , 연령의 주효과,  $F(1, 124) = 30.09, p < .01$ , 면담자의 지지와 연령의 상호 작용 효과,  $F(1, 124) = 4.40, p < .05$ 가 유의미했다(그림3).

또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가 제공해주는 지지’라는 비인지적 요인과 출처 감찰 사전 훈련이라는 인지 훈련이 아동의 출처 감찰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표2).

면담자의 지지에 따른 주효과,  $F(1, 120) = 39.95, p < .01$ , 인지 훈련에 따른 주효과,  $F(1, 120) = 22.80, p < .01$ , 연령에 따른 주효과,  $F(1, 120) = 32.06, p$



표2. 면담자 지지/인지훈련 여부에 따른 출처 감찰 정확도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면담자 지지	인지 훈련	어린 아동	나이든 아동
제공 여부	여부	M(SD)	M(SD)
면담자 지지 제공	인지 훈련	12.81(1.28)	22.80(.68)
	제공 없음	10.00(.65)	19.06(1.61)
	합계	11.45(1.75)	20.87(2.26)
면담자 지지 무	인지 훈련	6.76(1.10)	20.80(.67)
	제공 없음	5.89(1.41)	16.88(.81)
	합계	6.31(1.32)	18.77(2.13)
총 합	인지 훈련	9.70(3.28)	21.80(1.22)
	제공 없음	7.76(2.36)	17.97(1.68)
	합계	8.73(3.00)	19.82(2.42)

<.01 가 유의미하였다. 연령, 지지 여부, 훈련 여부의 3원 상호 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120) = 7.45, p < .01$ .

즉 연령에 따라 면담자지지 여부와 인지훈련 간의 상호작용이 차이가 났다. 어린 아동들은 면담자의 지지 여부와 인지 훈련 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F(1, 62) = 11.47, p < .01$ (그림4), 나이든 아동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8) = .13, p > .05$ (그림5).

나이든 아동들은 면담자의 지지에 상관없이 인지적 훈련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출처 감찰 수행이 일관성 있게 향상된 반면, 어린 아동들은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지 훈련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만 인지 훈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면담자의 지지가 어린 아동의 출처 감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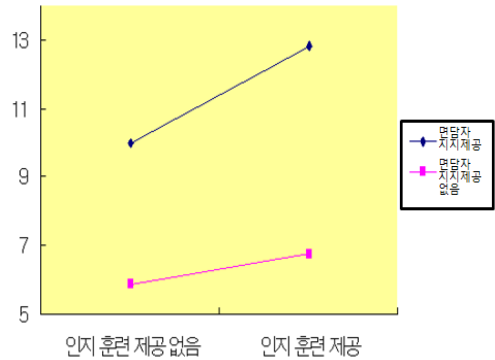


그림4. 어린 아동의 면담자 지지/인지훈련에 따른 출처 감찰의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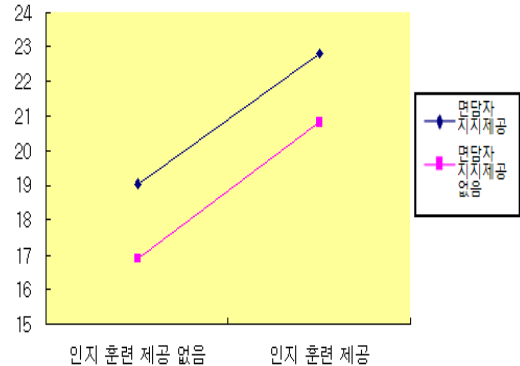


그림5. 나이든 아동의 면담자 지지/ 인지훈련에 따른 출처 감찰의 정확도

수행 자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전 인지 훈련 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아동들에게 출처 감찰 수행에서 사전 인지 훈련 효과를 기대하려면, 면담자의 태도가 지지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 전 체 는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과 관련하여 출처 감찰 인지 훈련과 면담자의 지지의 영향을 탐

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실험1의 결과는 면담상황에서 면담자의 지지라고 하는 비인지적 요인이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에 영향을 주고 이와 같은 영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어린 아동들이 나이든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면담자 지지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따라서 면담자의 지지는 과제수행 상황에서 불안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과제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린 아동에게 효과적이다.

실험2의 결과는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은 사전 인지 훈련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기존 연구(Thierry & Spence, 2002)와는 달리 어린 아동들도 사전 인지 훈련이 출처 감찰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인지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고 어린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지지 제공에 따라 인지훈련의 영향도 크게 달라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면담자의 지지와 출처 감찰 수행과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비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의 지지라고 하는 비인지적 요인이 출처 감찰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나이든 아동들 보다 어린 아동들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 아동들이 나이든 아동들 보다 비인지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인지 과제의 수행 정확도에 있어서 비인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이 범죄 사건의 목격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인터뷰를 요구받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어린 아동들을 면담하는 면담자가 어떤 태도로 면담에 임해야 하는지, 면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동 면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으로 하여금 가능한 과거 사건에 관한 기억을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환경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면담 상황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면담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면담시 면담자의 정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아동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 목격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도와주기 때문이다(곽금주, 김연수,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 아동이 쉽게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황에서 이 아동들을 면담하는 면담자가 지지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동의 과거 사건의 기억 회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특히, 법정 면담은 학대당한 아동들이나 성 폭행을 당한 아동들의 경우가 많다. 이런 아동들은 종종 낮은 자존감과 위축으로 고통을 받거나 수줍음을 많이 탄다(Kaufman & Cicchetti, 1989). 따라서 이런 아동들은 타인을 더 염려하고 덜 신뢰하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어 면담의 정서적 질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강조한 면담자의 지지는 아동들의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고, 아동이 지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수사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면담자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아동증언의 선행연구에서 면담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아동의 암시성에 저항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사건발생과 아동면담과의 시간차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사건발생의 2주 후와 비교해서 4주후의 면담 시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은 더 강력하였다(Goodman et al., 1992).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상황에서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하되 지지의 정도에 따른 변화나, 인지 훈련의 정도 그리고 아동의 인지 발달적 특성, 아동의 개인차, 자극의 특성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김연수(2003). 취학전 아동증언에서 참여여부, 질문 및 질문자의 특성에 따른 기억의 정확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1-19.
- 곽금주, 이승진(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4-40.
- Ackil, J. K., & Zaragoza, M. S. (1995).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eyewitness suggestibility and memory for sourc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57-83.
- Burleson, B. R., Albrecht, T. L., Goldsmith, D. J., & Sarason, I. G. (1994). Introduction : The communication of social support. In B. R. Burleson, T. L. Albrecht, & I. G. Sarason (Eds.), *Communication of social support*.(pp. xi-xxx). Thousand Oaks, CA : Sage.
- Cameron, S. C. (2007). The examination of fixed and multi-tier source monitoring training with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Canada.
- Carter, C. A., Bottoms, B. L., & Levine, M. (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0, 335-358.
- Ceci, S. J., Ross, D. F., & Toglia, M. P. (1987).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 Psycholeg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General*, 116, 38-49.
- Davis, S. L. (1998). Social and scientific influences on the study children's suggestibility : A historical perspective. *Child Maltreatment*, 3, 186-194.
- Davis, S. L., & Bottoms, B. L. (200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 A Test of the Underlying Mechanism. *Law and Human Behavior*, 26(2), 185-215.
- Fisc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Foley, M. A., & Johnson, M. K. (1985). Confusions between memories for performed and imagined actions : A developmental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6, 1145-1155.
- Goodman, G. S., Sharma, A., Thomas, S. F., & Considine, M. G. (1995). Mother knows best : Effects of relationship status and interviewer bias on children's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195-228.
- Goodman, G. S., Taub, E. P., Jones, D. P., England, P., Port, L. K., Rudy, L., & Prado, L. (1992). Testifying in criminal court : Emotional effects on child sexual assault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5), 1-142.
- Kaufman, J., & Cicchetti, D. (1989). Effects of

-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elly, D. H., & Gorham, H. (1988). Effects of immediacy on recal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37, 198-207.
- Lindsay, D. S., & Johnson, M. K. (1989). The eyewitness suggestibility efficacy and memory for source. *Memory and Cognition*, 17, 349-358.
- Lindsay, D. S., Johnson, M. K., & Kwon, P. (1991). Developmental changes in memory Source Monit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2, 297-318.
- Markham, R. (1991). Development of reality monitoring for performed and imagined act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2, 1347-1354.
- Mehrabian, D. (1969). Some referents and measures of nonverbal behavior. *Behavioral Research Methods and Instruments*, 1, 213-217.
- Parker, J. F. (1995). Age differences in Source Monitoring of performed and imagined actions on immediate and delayed tes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84-101.
- Poole, D. A., & Lindsay, D. S. (1995). Interviewing preschoolers : Effects of nonsuggestive techniques, parental coaching, and leading questions on reports of nonexperienced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129-154.
- Poole, D. A., & Lindsay, D. S. (2001).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fter exposure to misinformation from par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1), 27-50.
- Quas, J. A., Bauer, A., & Boyce, W. T. (2004). Physiological reactivity, social support, and memory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5, 797-81.
- Quas, J. A., Schaaf, J. M., Alexander, K. W., & Goodman, G. S. (2000). Do you really remember it happening? Children's Source Monitoring in forensic contexts. In K. P. Roberts & M. Blades (Eds.), *Children's movements in speech production. Psychological Science*, 7, 226-231.
- Richards, J. E., & Casey, B. J. (1991). Heart rate variability during attention phases in young infants. *Psychophysiology*, 28, 43-53.
- Roberts, K. P. (2000). An overview of theory and research on children's Source Monitoring. In K.P. Roberts & M. Blades (Eds.), *Children's Source Monitoring* (pp.11-57). Mahwah, NJ : Erlbaum.
- Roberts, K. P., Lamb, M. E., & Sternberg, K. J. (2004). The effects of rapport-building style on children's reports of a staged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189-202.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 (Eds.). (1990). *Social support :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 Wiley.
- Saywitz, K. J., & Nathanson, R. (1993). Children's testimony and their perceptions of stress in and out of courtroom. *Child Abuse and Neglect*, 17, 613-622.
- Spielberger, C. D. (1979). *State-trait anxiety*

-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uess, P. E., Porges, S. W., & Plude, D. J. (1994). Cardiac vagal tone and sustained attention in school-age children. *Psychophysiology*, *31*, 17-22.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New York: Ballantine Books.
- Thierry, K. L., & Spence M. J. (2002). Source-Monitoring Training Facilitates Preschoolers' Eyewitness Memory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8*(3), 428-437.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Welch-Ross, M. K. (1995). Developmental changed in preschoolers'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memories of performed, pretended, and imagined 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10*, 421-441.
- Wood, J. M., McClure, K. A., & Birch, R. A. (1996). Suggestions for improving interviews in child protection agencies. *Child Maltreatment*, *1*, 233- 230.
- Zaragoza, M. S., & Koshmider, J. W., III. (1989). Misled subjects may know more than their performance impl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5*, 246-255.
- Zaragoza, M. S., & Lane, S. M. (1994). Source misattributions and the suggestibility of eyewitness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0*, 1-12.
- 

1차 원고 접수: 2009.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05. 12.

최종 게재 결정: 2009. 05. 13.

# The Effect of Interviewer-Provided Support on Children's Source Monitoring

Seung-Jin Lee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motional and cognitive support on the accuracy of child source monitoring. It designed two experiment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viewer-provided support (IPS) on child Source Monitoring. Specifically, IPS was examined to determine if it could efficiently increase the accuracy of source monitoring, and if so, whether it is more efficient when used with younger children (Experiment 1).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resence of IPS affects the efficiency of cognitive training (Experiment 2). The results of Experiment 1 revealed that children in two age groups (N=30, ages 3-5 years N=31, ages 7-8 years) had more accurate recall when they were in an IPS group than in a control group. More importantly, children in younger age groups were more influenced by IPS than older children. The results of Experiment 2 revealed that children in two age groups (N=66, ages 3-5 years N=62, ages 7-8 years) benefited from cognitive training, but younger children only benefited when IPS was provided with the cognitive training. These results imply that IPS can improve the accuracy of children's Source Monitoring memory recall; However, source monitoring training only enhances young children's source monitoring accuracy when IPS is provided.

*Key words* : Source Monitoring, interviewer-provided support, Source Monitoring training

참조1. 직접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과학 실험의 목록

과제	실제	동영상
달걀	물에 달걀이 가라앉음(검은색)	물에 달걀에 뜬(달걀색)
자석	물체들이 자석에 붙음(쇠)	물체들이 자석에 붙지 않음(학용품)
풍선	병 속에 풍선불기: 팽창 안 됨(녹색 풍선)	병 속에 풍선 불기 : 팽창됨(노란색 풍선)
색종이	네모 모양(파란색)	옷 모양(보라색)
초 끄기	초 꺼지지 않음(작고 가는 양초)	초 꺼짐(크고 굵은 양초)
비눗방울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음 (빨대 이용)	비눗방울이 생김 (비눗방울 막대 이용)

참조2. 훈련 집단 문항의 예

	직접	동영상	don't know
1	토끼 친구들이 바빠서 한 명도 오지 못했어요. 그죠? 직접 본 인형극에서였니 아님 컴퓨터에서였니?		
2	사자는 외투이가 된 토끼가 불쌍해서 대신 친구가 되어 주기로 했었어요...그죠? 직접 본 인형극에서였니 아님 컴퓨터에서였니?		
3	토끼가 생일잔치를 한다고 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어요..그죠? 직접 본 인형극에서였니 아님 컴퓨터에서였니?		
4	사자는 결국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토끼를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죠? 직접 본 인형극에서였니 아님 컴퓨터에서였니?		
5	토끼 친구들은 토끼를 위해 이것저것 먹을 것을 준비해 왔어요, 그죠? 직접 본 인형극에서였니 아님 컴퓨터에서였니?		

참조3. 통제 집단 문항 예

	yes	no	don't know
1	토끼는 낮잠을 자고 있었니?		
2	토끼의 친구들은 소문을 들었니?		
3	사자는 토끼의 친구들을 잡아먹었니?		
4	토끼의 친구들 중에 악어도 있었니?		
5	토끼는 사자가 무서워서 몰래 도망갔니?		